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관한
고교교사의 인식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김미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관한
고교교사의 인식 분석

지도교수 원 효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김미진

김미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23일



주 심 공 학 박사 박종운



위 원 교 육 학 박사 황미영



위 원 교 육 학 박사 원효현



목 차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가. 학생부종합전형	5
나. 공정성	5
II. 이론적 배경	7
1.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 공정성	7
가.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7
나.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12
2. 학생부종합전형의 의의 및 정책 현황	14
3.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	18
4.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22
가.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주요내용	22
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주요내용	25

Ⅲ. 연구 방법	30
1. 연구 대상	30
2. 측정 도구	33
3. 자료 분석	38
Ⅳ. 연구 결과	39
1.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39
2.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52
Ⅴ. 논의 및 결론	63
1. 논의	63
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63
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66
2. 결론 및 제언	69
참 고 문 헌	72
부 록	75

표 목 차

<표 II-1>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	8
<표 II-2>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지원사업 현황	17
<표 II-3>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현황	18
<표 II-4>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특징	24
<표 II-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25
<표 III-1> 연구대상자의 배경 정보	32
<표 III-2> 배경요인 조사문항	33
<표 III-3> 설문 문항의 1차 사전 신뢰도 분석 결과	35
<표 III-4> 설문 문항의 2차 사전 신뢰도 분석 결과	35
<표 III-5> 설문 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 분석 결과	36
<표 III-6> 분석의 틀	38
<표 IV-1>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40
<표 IV-2>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	40
<표 IV-3>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41
<표 IV-4> 성별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43
<표 IV-5>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44
<표 IV-6> 학교 유형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45
<표 IV-7> 교직경력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46

<표 IV-8> 직급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48
<표 IV-9> 고3 담임 지도 경력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49
<표 IV-10> 담당 학년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50
<표 IV-11> 담당 과목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51
<표 IV-12>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에 관한 인식	53
<표 IV-13>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인식	54
<표 IV-14>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대한 인식	55
<표 IV-15> 성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56
<표 IV-16>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57
<표 IV-17> 학교 유형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57
<표 IV-18>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58
<표 IV-19> 직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59
<표 IV-20> 고3 담임 지도 경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60
<표 IV-21> 담당 학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61
<표 IV-22> 담당 과목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62

An Analysis of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Fairness on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Mi Ji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high school teachers about the fairness o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high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fairness on the current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lans for enhancing the fairness o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in '2022 revised plan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policies' have an effect on the strengthening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of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 high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fairness in aspect of the current admission system? Second, how do high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plans for enhancing the fairness o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in 2022 revised plan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policies?

In orde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203 high school teacher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25.0] program was used,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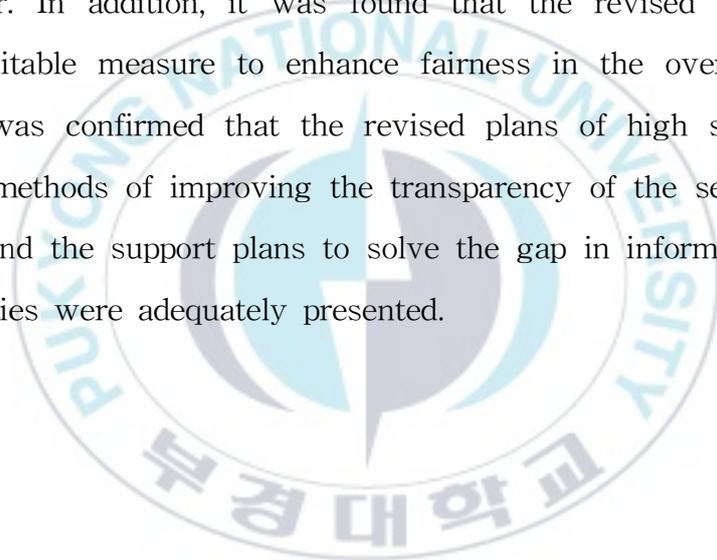
the data were process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addition, T-test and F-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high school teachers perceived that the current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was not fair. However,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they thought that the actual high school field was somewhat normalized. Specifically,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admission system, it was not helpful to reduce inequality in the underprivileged. And there were still inequalities 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networks depending on the region and unit school, and there were inequalities and gaps in the items of the school record depending on the school type and the tendency of the homeroom teacher. In addition,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on the position of teachers. The general teachers were more negative about the fairness of the admission system than the chief teachers.

Secondly, the high school teachers recognized that the plans for enhancing the fairness o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in '2022 revised plan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policies' was appropriate. In particular, it was most noteworthy that the thorough grade manage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unit school would be helpful in enhancing fairness when it came to the revised plans. They also not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hancing transparency in selection, such as the disclosure of criteria for assessment by universities, the introduction of a multiple-level evaluation system, the avoidance and exclusion system of the admissions officers and the cancellation of

admission on fraud charges would be helpful for fairness. The high school teachers recognized that the measures to support the elimination of the information gap about university admissions would be generally helpful in improving the fairness of the system. They also perceived that the way to reduce gaps in information acquisition, such as strengthening the guidance and standardizing the typical name so that it could be easily understood, would help improve fairness.

The conclusions of thes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fforts to enhance fairness are continuously required as the current system is still not fai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revised plans were a generally suitable measure to enhance fairness in the overall admission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 revised plans of high school student record,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of the university, and the support plans to solve the gap in information between the universities were adequately present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년 새로운 대학입시정책을 발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진학지도를 하는 교사들도 바뀐 정책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반면, 대학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입시 제도를 도입하고, 끊임없이 대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히 대학의 인재 선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위주인 정시모집의 비중이 커지면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변화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커지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점에서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정책이며, 대학교육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강기수·박소영, 2017). 따라서 최근의 대학입시제도에서는 인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들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계적 점수 위주의 선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과 성적과 수능 중심의 입시 방법을 주로 운영해왔다(임충열, 2018; 허정은, 2015). 이에 정부에서는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대학입시제도를 보완하고자 학교생활과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수능시험과 내신 성적 등 정량적인 지표

들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임충열, 2018).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교육부, 2013)을 발표하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목표를 명시화하였다(주영호, 2017). 이에 학생부 중심전형의 강화로 대입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이상명, 2017).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단기간에 주된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김평원, 2018; 박찬호·이진희, 2018; 이상명, 2017; 최정묵, 2016).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적 능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학생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정묵, 2016). 이에 전형이 추구하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로 인해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기도 했다(박찬호·이진희, 2018). 심지어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전형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김평원, 2018). 현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논란의 중심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또는 축소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지하는 측과 정시 수능전형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정책 결정에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그 어느 쪽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을 모순적으로 봉합하는 현행 수준의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였다(이주영, 2018).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학업성적 외에 잠재력, 소질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박찬호·이진희, 2018). 즉,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보다 학생 선발방식으로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타당도에 걸맞게 신뢰도가 어느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김평원, 2018).

이에 정부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방안으로 고등학교 학생부의 기재 방식을 개선하며,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입 정보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8).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진학을 직접 지도하며 대입제도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하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개편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실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신뢰도 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의 반영과 학생의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대입제도의 가장 큰 정책이해관계자인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측면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측면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1.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3.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연구목적 규명을 위한 주요 용어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업무를 맡는 전문가를 말하며 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이다(허정은, 2015).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을 채용·위촉하여 지원자의 고등학교 내신성적, 비교과 활동, 학업 환경, 지원학과에 대한 적성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이나 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한 신입생을 선발한다(임충열, 2018).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제라는 명칭으로 2008학년도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지속·운영되고 있다(허정은, 2015).

나. 공정성

공정성이란 평가의 결과가 평가받는 특성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따라 다르지 않게 나오는 정도를 말한다. 평가대상이 속한 지역, 학교환경, 가정 환경 또는 성별 등에 의해 불리하게 평가된다면 이러한 평가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의 의미는 형평(equity)과 평등(equality)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공정성은 평가 방법이나 내용이 학생에 따라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한 정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수행평가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정에 인터넷, 컴퓨터 기기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면 이것은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Ⅱ.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 공정성

가.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입시제도는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절차 또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을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대학입시제도는 적격자의 선발이라는 본질적 기능 외에도 고교교육의 방향 설정이나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이재태, 2015). 대학입시정책은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 교육정책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매년 대학입시제도는 전형방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입제도의 변화는 대학교육 이념과 성격의 변화에 따른 변화보다는 대학교육의 수요과다로 인한 과열 경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입제도의 변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전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화는 국가가 어떤 전형을 어떻게 사용할지 얼마나 허용하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출제 경향의 변화, 각 대학의 전형방법 등이 변해왔다(안수진, 2015).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

구분	시기	특징
1	1945~1953학년도	대학별 단독시험제
2	1954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 병행제
3	1955~1961학년도	대학별 단독 시험과 무시험 병행제
4	1962~1963학년도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5	1964~1968학년도	대학별 단독시험제
6	1969~1980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 병행제
7	1981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와 고교내신 성적 병행제
8	1982~1985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 성적 병행제
9	1986~1987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및 논술고사 병행제
10	1988~199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내신 성적·면접 병행제
11	1994~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과 고교내신 및 대학별 고사 병행제
12	1997~2001학년도	수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별 고사 병행제
13	2002~2004학년도	입학전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14	2005~2007학년도	선택제 수능의 도입
15	2008~2009학년도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
16	2010~2013학년도	대학 자율화와 입학사정관 확대
17	2014~2018학년도	대입제도 간소화 및 입시부담 완화

출처: 이송희(2015), 안수진(2015)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 재구성

식민지시기부터 1953학년도까지는 문교부에서 시험 과목의 일부를 지정하거나 시험 기일을 정하는 등 행정적 관리만 하고 문제출제를 비롯하여 학생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맡겨졌다. 1953년에 국가고시

시행을 결정하고, 1954학년도에 대학연합고시를 실시하였으나, 이 고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으로 인해 시행이 중단되었다. 다시 1955학년도부터 대학별로 대학입시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1961학년도까지 유무시험 병용제, 유시험제, 무시험제 등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다르게 시행되었다. 이후 1962학년도에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63학년도에 대학별 고사를 자격고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1964학년도부터 1968학년도까지는 다시 국가고사 없이 대학별로 전기와 후기로 고사를 치르다가, 1969학년도에 대학입학예비고사가 실시되었다. 1973학년도부터 1980학년도까지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1977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1981학년도에는 대입전형에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을 50% 이상으로 반영하고, 내신 성적 20% 이상, 나머지 30%는 각 대학이 예비고사나 내신 성적을 적절히 조정하여 재량껏 반영하도록 하였다. 1982학년도에는 대학입학예비고사의 명칭을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변경하고 1985학년도까지 학력고사 50% 이상, 내신 성적 30% 이상으로 하여 대학별로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1986학년도부터 1987학년도까지는 학력고사의 보완책으로 논술고사를 도입하여 학력고사를 50% 이상, 내신 성적을 30% 이상 반영하고 논술고사는 10% 이내에서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1988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전형 방법을 선지원 후시험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988학년도부터 면접고사가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이송희, 2015).

1994년도부터는 이전까지 시행해오던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본고사가 부활하였다.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과 대학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요소는 수능, 고교 내신 성적, 대학별 고사가 대표적이었으며, 그중 수능시험은 국가가 출제부터 채점, 시행 및 관리의 일체를 관장하여, 객관성과 공공성이 높은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97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는 교육부가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 시행 기본 계획”을 통해 수능시험, 학생부 및 대학별 고사 등을 주요 전형자료로 하며, 대학별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전형자료를 보조 전형 자료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 시기에 대입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수시모집과 추가모집을 통해 연중 수시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97학년도부터는 전기·후기모집의 구분을 없애고, 특차모집과 정시모집이 군별로 실시되어 복수지원의 기회도 확대되었다(안수진, 2015).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대입제도 개선안의 특징은 다양한 전형자료의 활용이다. 학생부와 수능 외에 논술, 면접,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가 평가에 활용되었으며, 특정 분야에서 역량을 계발한 특기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별 특별전형도 강화되었다. 또한 시험에서 성적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석차 화를 억제하며, 학생부의 다양한 기록을 통해 대학에서도 다양한 선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본고사를 폐지하였다. 2003학년도에도 3불 정책(대학별 본고사, 기여 입학, 고교등급제)이 유지되며, 대학의 수시모집 확대, 실업계 고교 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 등 다양한 학생선발 방식이 시행되었다.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의 대학입시정책의 주요 특징은 선택제 수능을 도입한 것이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되고, 수능시험 난이도의 안정화를 위한 출제체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2004학년도부터 시작한 대입제도의 개편을 통해 수능과 내신 9등급제를 시행하였으며,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는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크게 확대된 시기이다. 대학의 선발 경쟁에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입학사정관제 운용을 권장하였으며, 대입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수시 1학기 모집의 점진적인 폐지도 검토 대상이 되었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는 대학의 자율화가 주요 특징이다. 대학의 자율과 책임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대교협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이 있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교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교육과정의 개정에 맞추어 수능 영역 및 과목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이송희, 2015).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대학입시는 대학입시 부담 경감과 간소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2014학년도에 대입정책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학년도부터 다음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대입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수시 모집은 4개, 정시모집은 2개 이내로 전형 방법의 수를 축소하며,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논술고사의 축소, 면접은 문제풀이식 구술형 고사는 지양하고 학생부를 활용하도록 권장, 대입전형의 사전예고제,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로, 제도적인 틀에서 대학입시제도는 국가고사와 대학별 고사, 고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 보장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국가고사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고교 내신 성적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강병운, 2001). 둘째로, 대학입시제도 운영의 주도권은 대학에서 국가로, 다시 대학으로 순환되었다(김동석, 1998). 대학은 자율성을 갖고 자체적으로 대학입시에서

필답고사를 주요 과목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국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시험제도를 도입 및 내신제를 통해 대학입시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입시제도 시행의 주도권이 국가와 대학이 순환하는 구조였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제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을 통해 기존 대학입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수능은 기존의 암기 중심의 시험을 벗어나 사고력을 중시하는 시험으로 변경된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시험 성적 등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게 되었다(이재태, 2015).

나.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대학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학입학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교육정책에 대하여 불신과 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는 과거의 대학입학학력고사나 현재의 수능 시험과는 달리 사람들이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량화된 객관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파악이 쉽지 않은 수험생의 특징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에 수반된 공정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최정목, 2016).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내신, 논술, 면접 등으로 이루어진 수시 전형과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시 전형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현 대입제도는 공정성의 측면 중에서도 조건의 평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건의 평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능은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에서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력고사를 대신하고자 현재의 수능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암기 위주인 객관식 문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범교과적 문항의 출제를 통해 고등사고력을 측정하여 대학에서 교육하기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강창동, 2007), 학교교육이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학력고사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학습하였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면, 수능은 대학에 진학해서 수학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었는지를 알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측면에서는 논술시험도 예외가 아니다. 논술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논술 시험이 시행될 당시 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들은 이전에 논술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술 지도가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논술 시험이 시행된 후 초기의 수험생들은 학교가 아닌 오직 사교육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지방에서는 사교육을 통해서도 논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논술이라는 장벽 앞에서 입시를 준비해야만 했다.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불필요한 입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과 적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교육이 아닌 중등학교에서보다 정상화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도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기대와는 달리 계층적으로 보면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교과 성적 외의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수상경력 등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재력이 많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내의 활동에 집중하고,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전형으로 운영하며 사교육의 유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입제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정성 측면에서 조건의 평등과 관련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내신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사가 낸 문제로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교 요인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불평등의 요소가 적은 편이다. 다만,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학교 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내신제도가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할 경우, 학교생활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는 법을 익히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과도한 경쟁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입시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또한 분명하다(정원규, 2011).

2. 학생부종합전형의 의의 및 정책 현황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 수시모집 전형의 한 유형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학생부교과전형과 함께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전형 요소에 학생부를 주된 요소로 반영하는 유형으로써 학생 선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교사추천서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따라서 모집단위에 대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종합·평가하여 학과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학생부교과전형은 전형 요소에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이며, 각 대학에서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을 달리하여 설정 가능한 전형이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느냐,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등을 함께 반영하여 정성적 평가와 동시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느냐와 같이 평가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다(주영호, 2017).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의 학습 결과를 중시하는 전형 방식과 다르게, 학생의 인성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 과정,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들 간의 점수 위주의 경쟁을 완화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고등학교 현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기대되어 왔다(박찬호·이진희, 2018)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 없이도 학교생활에 충실하기만 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인재상 및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학생을 평가·선발함으로써 대입 자율화를 확대하고자 한다(임충열, 2018).

학생부종합전형은 초기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대학입시는 단순히 입학지원자들을 성적순으로 순서를 매기고 합격을 시키는 소극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입 전형을 운영해 왔다. 대학에서는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순서의 규칙이 대학 입학전형 설계의 핵심이었으며, 규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정원이 소진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강기수·박소영, 2017).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문제점 중 하나는 기계적 점수 위주의 선발이 진행되는 교과 성적과 수능 중심의 입시 방법이다(임충열, 2018; 허정은, 2015).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정략적인 지표(수능, 내신 성적)들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충열, 2018).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전 명칭인 입학사정관전형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은 평가 운영 방식에서 평가 전문인력인 ‘입학사정관’이 중심이 되는 전형이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라는 전형 자료와 실질적 반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대비된다. 다시 말해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전형이기는 하지만, 입학사정관전형에 비해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이 없는 서류 100%, 또는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 100%로 운영되는 등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한 기점으로부터 확인된다. 개선방안에서는 수능의 개선과 학생부 반영 비중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되었으며, 학생 선발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학생부 활용이 강화되고,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요시함은 물론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주영호·김상철, 2017).

이후 2007년부터는 <표 II-2>에서와 같이 교육부에서 진행한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10개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를 진행하였다(주영호·김상철, 2017). 이에 도입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던 대학들도 재정지원의 확대로 인해 점차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8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한 대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은 대학입시전형 중에서도 가장 관심받는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II-2>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지원사업 현황

(단위: 개교,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업 명칭	시범 사업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대학	10	40	47	60	60	58	66	65	60	60	62	68	68
지원 금액	20	157	236	350	351	391	395	610	510	459	543	559	559

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7-2019). 연도별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재구성

2015학년도에 적용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교육부, 2013)을 발표하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목표를 명시화하면서(주영호·김상철, 2017)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부터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이어, 대입전형 간소화, 대학별 고사 및 특기자전형 축소 등의 목표를 통해 대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전형 방법의 간소화,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 지원 대학 외에도 전국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이 점차 증가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은 <표 II-3>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차정민, 2016).

<표 II-3>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현황

(단위: 명, %)

학년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인원	1,422	15,579	35,421	42,163	44,686	46,920	58,879	67,231	72,767	83,553	84,860
비율	0.7	6.9	15.1	17.7	18.3	18.7	24.4	27.9	29.5	32.3	32.1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2019). 연도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보도자료 재구성

3.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전형으로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고등학교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과 부정적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형이 가지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로 인해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언론, 학계, 이익집단 사이에서 논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회피·제척 시스템, 유사도 검색 시스템 등의 철저적인 장치는 물론 입학사정관의 윤리교육, 다수-다단계 평가 도입 등의 체제를 정비하여 공정성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박찬호·이진희, 2018).

먼저, 대학입시제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고등학교 교사와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김평원(2018)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교사의 시각 차이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타당도가 높지만, 신뢰도가 낮으므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성장 과정이 학생부에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학생을 선발할 때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실제 역량보다 과장된 내용을 줄여서 적절하게 보정하고, 과소평가된 내용은 확장하여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정묵(2016)은 대학입시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이 느끼는 대학 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학입시제도를 겪은 대학생들은 수능시험 위주를 벗어나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과정에서 제도가 자주 변경되어, 분배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격차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집단 혹은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입학 전형의 불공정성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윤서현(2015)은 대입에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과 효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사점을 탐색

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목적과 취지, 내용 및 절차, 장단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한 만족도, 입학사정관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방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사교육비의 감소, 잠재력 향상, 입시부담 감소, 고교서열화 및 불균형 완화, 고등학교 교육의 충실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의 측면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명(2017)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 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개인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인 자율 활동·동아리 활동·봉사활동·진로 활동 등의 활동을 평가의 요소로 활용하며, 나아가 면접·논술까지도 포함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기존에 준비해오던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를 위해 내신 성적 및 면접, 논술 등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 할 수 있다(박찬호·이진희, 2018).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입제도가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의 의미가 매우 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성을 보인다(김은영 외, 2013). 하지만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부정적인 연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밝힌 연구 또한 다양하다. 조규판 외(2012)의 연구에서는 406명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308명의 일반전형

으로 입학한 학생을 비교·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시기의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비용 지출을 비교해 보면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들이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 비용을 적게 지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남창우 외(2018)의 연구에서도 대학 신입생 1,151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별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강기수·박소영(2017)의 연구에서도 학생부위주전형이 수능위주전형, 논술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 보다 사교육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언론에서 제시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들을 살펴보면 국가의 역할에 대해 지원과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재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와 더불어 철저한 감독과 사후 관리를 주장하였다. 반대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여부를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박찬호·이진희, 2018).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대학입시전형으로써 적절하고 공정한 전형인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관심과 실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가.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주요내용

교육부는 2018년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 어떠한 교육개혁도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문가 자문, 대입정책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급격한 학생부 위주 전형의 확대에 대한 우려와 공정·투명한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각적인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방향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동시에, 경쟁과 입시가 중심이 되는 고교교육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바꾸어나가고, 올바르게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의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학생들에게 제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둘째, 수능 영역 중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등에 공통 및 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탐구영역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심화 과목인 기하, 과학Ⅱ를 출제하는 등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수능 평가 방법으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그리고 탐구 영역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부의 기재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 및 선발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고교교육 혁신방향”으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둔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부분 도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둔다. 둘째, 2019년도의 고등학교 1학년부턴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석차등급을 제외하여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고, 2025년의 고교 1학년부턴 전 과목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개선과 단계적 전환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등학교 체제의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특징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특징

특징	처음 도입하는 제도	개선·보완된 제도
국민 중심 (숙의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이 직접 참여 	
학생 중심 (제도전 기회, 부담 완화, 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산업·전문·원격대 제외) 수능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수능 수학·사회·과학 과목에 문과·이과 구분 폐지 수능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공정 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대입공정성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입시부정 제재 근거법규정 신설 대입전형별 학생 지역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활동 중심 학생부 기재 학생부 대입 제공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 학생부 소논문(R&E) 기재 금지 학생부 기재 분량 감축 및 도움 자료 확대 보급 학생부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평가기준 공개 강화(부정사례 등) 학생이 일목요연하게 대입정보를 확인하도록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 대입전형별 학생 고교유형 공시
단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추천서 폐지 수시 적성고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입 전형명칭 표준화 자기소개서 문항 통합 및 분량 감축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구술고사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출처: 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보도자료

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주요내용

학생부종합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바탕으로 모집단위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부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노력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표 II-5>와 같이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 개선에 관한 내용과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입 정보의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

<표 II-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항목	현행	개선
인적사항	▪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 학적사항과 통합 ▪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학적사항	▪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 인적사항과 통합
출결상황	▪ 질병·무단·기타	▪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수상경력	▪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 대입자료로 제공	▪ 대입자료로 미제공
진로희망 사항	▪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봉사 활동	▪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항목		현행	개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 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 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 1,700자
누가 기록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내용 미기재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현행 유지	
자유학기활동 상황(중)	▪특기사항 입력	▪현행 유지	
독서활동 상황(중 고)	▪제목과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 1,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기재분량 축소 :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출처: 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보도자료

(1)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의 첫 번째는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이다. 학생부의 인적·학적사항에 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과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제공하는 정보는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동아리 또한 기재하는 동아리의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소논문(R&E)은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와 항목 등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황수진(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16학년도에 사교육 연관단어로 캠프, 경시대회, 컨설팅 등의 단어와 함께 수상, 실적, 스펙, 독서, 상담, 관리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사교육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정비하는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부의 단순한 정보 제공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학교별 교사별 역량에 따라 기재되는 격차에 의한 공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기재 부담을 완화하여 기재 격차를 완화하고자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기재의 분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부 기재 관련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 및 기재 도움 자료를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관리와 관련하여 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허위·부당·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박균열 외(2015)는 학생부 기재방식과 관리,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개선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부와 관련된 전문가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생부의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조사하였다.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재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입시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너무 상세한 기재요령을 제공하기 보다는 학생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큰 틀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학생부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글자 수가 축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형 서류를 개선하고, 평가 기준 및 선발 결과를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기소개서는 대필 및 허위 작성 등의 우려가 있으나, 학생을 평가할 때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문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식을 개선하고, 면접 및 유사도 검증을 통해 자기소개서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자기소개서는 문항 수와 글자 수를 제한하여 학생의 개별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질문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학생부 기반의 확인 면접을 실시하고,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자기소개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정원 미달 시에는 합격이 가능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입학 취소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허위작성 또는 대필 등의 문제를 좀 더 축소하고자 (가칭)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생이 스스로 자기소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교사추천서의 경우는 학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종합 의견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므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입학 평가 기준 및 신입생의 고등학교 유형 정보 및 지역 정보에 대한 공시도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평가제도의 신뢰도 제고 측면으로는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을 위하여 다수-다단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을 의무화한다. 대학별로 설치되어있는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며, 입시와 관련된 부정·비리와 관련해서는 입학 취소를 포함하여 근거 법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중 대입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먼저, 대입전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형의 명칭을 표준화하고, 대학별 평가 기준 등 정보가 학생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의 기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정보 소외지역의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대입 정보의 제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 개최는 물론 대입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대입정보박람회,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대입포럼 등 학생이 대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및 경남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관계자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이며, 학교 현장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겪게 될 당사자이자 가장 큰 정책이해관계자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지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경험과 인식이 공정성 제고 방안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교사의 일반적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근무학교 소재지 및 교직 경력,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지도 등을 고려하여 설문하였다. 학교 유형은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대학진학에 목적을 두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운영 방법은 상이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이메일과 인터넷(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과 출력된 설문지를 배포하는 두 가지 형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212명이었다. 이후 실제 분석을 위해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203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20명(59.1%), 여자 83명(40.9%)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무학교의 소재지는 도시지역이 168명(82.8%), 읍면지역이

35명(17.2%)이다. 근무 학교의 유형으로는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도 사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114명(56.2%)이었으며, 일반계고등학교의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사가 32명(15.8%),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57명(28.1%)이었다. 응답 교사의 교직 경력으로는 5년 이하가 40명(19.7%), 6~10년이 34명(16.7%), 11~15년이 34명(16.7%), 16~20년이 28명(13.8%), 21년 이상이 67명(33.0)으로 구성되었으며, 21년 이상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 교사의 직급으로는 교장, 교감 그리고 부장 교사를 포함하는 보직교사가 59명(29.1%), 일반교사가 144명(7.9%)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의 담임의 경험이 있는 교사가 124명(61.1%)이었으며, 경험이 없는 교사가 79명(38.9%)이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년으로는 1학년이 67명(33.0%), 2학년이 59명(29.1%), 3학년이 71명(3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담당 과목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주로 반영되는 주요 과목과 미반영 과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반영 교과 중에서도 계열을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는 과목을 조사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부분 반영되는 국어, 영어, 사회과 등 문과계열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98명(48.3%)이었으며, 수학, 과학 등 이과계열의 반영과목 담당 교사는 71명(35.0%), 기술·가정, 예술·체육 등 미반영교과 담당 교사는 28명(13.8%)으로 구성되었다. 담당 학년 및 담당 과목은 결측값이 존재하며, 이는 교장·교감의 경우 담당 학년과 과목이 없는 관계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배경 특성에 치우침이 없도록 배정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배경 정보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배경 정보 (N=203)

	구분(배경변인)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120	59.1
	여자	83	40.9
	합계	203	100.0
근무학교 소재지	도시지역	168	82.8
	읍면지역	35	17.2
	합계	203	100.0
학교 유형	일반고(국·공립)	32	15.8
	일반고(사립)	114	56.2
	자공고	57	28.1
	합계	203	100.0
교직 경력	5년이하	40	19.7
	6~10년	34	16.7
	11~15년	34	16.7
	16~20년	28	13.8
	21년 이상	67	33.0
	합계	203	100.0
직급	보직교사(교장·교감·부장)	59	29.1
	일반교사	144	7.9
	합계	203	100.0
고3 담임 경험	있다	124	61.1
	없다	79	38.9
	합계	203	100.0
담당 학년	1학년	67	33.0
	2학년	59	29.1
	3학년	71	35.0
	합계	197*	100.0
담당 과목 (학생부종합전형 반영 여부)	반영교과(문과)	98	48.3
	반영교과(이과)	71	35.0
	미반영교과	28	13.8
	합계	197*	100.0

* 교장·교감의 경우 담당 학년 및 과목이 없으므로 결측 처리되어 합계에서 제외됨

2. 측정 도구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고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기존의 연구인 강기수·박소영(2017), 김평원(2018), 안수진(2015), 허정은(2015)의 설문지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이전 정책의 시행 결과인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의해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고등학교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문항인 성별, 근무학교 소재지, 학교 유형, 교직 경력, 직급, 최근 5년 동안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경험, 담당 학년, 담당 과목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배경요인에 대한 상세한 조사 문항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배경요인 조사항목

문항	응답 항목 수	항목 내용
1. 성별	2개 항목	남자, 여자
2. 근무학교 소재지	2개 항목	도시지역, 읍면지역
3. 학교 유형	3개 항목	일반고(국·공립), 일반고(사립), 자공고
4. 교직 경력	5개 항목	5년 단위
5. 직급	2개 항목	보직교사(교장·교감·부장), 일반교사
6. 고3 담임 경험	2개 항목	있다, 없다
7. 담당 학년	3개 항목	1학년, 2학년, 3학년
8. 담당 과목	3개 항목	반영교과(문과), 반영교과(이과), 미반영교과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관한 질문으로 현행 제도와 차후 개편방안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알기 위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입시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 6문항과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8문항,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인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8문항,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11문항,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배경변인과 전체적인 설문 문항의 틀은 김평원(2018), 안수진(2015)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반적인 인식’과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강기수·박소영(2017)과 허정은(2015)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문 문항은 내용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교육학전공 교수 2인, 입학사정관 2인, 고교 교사 1인에게 설문지를 검토받았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전체적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전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은 총 2차에 걸쳐 Cronbach's α 를 통해 실시하였다. 1차 신뢰도 검증은 연구 대상 중 일부인 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항 내적 신뢰도가 .60 이하인 경우는 없었으나 문항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은 연구 목적에 알맞게 2개 문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였으며,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도 연구대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을 수정 하였다. 1차 사전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설문 문항의 1차 사전 신뢰도 분석 결과 (N=10)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s α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5문항	1, 2, 3, 4, 5	.624
전반적인 인식	3문항	6, 7, 8	.683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8문항	9, 10, 11*, 12*, 13, 14*, 15*, 16*	.792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8문항	17, 18, 19, 20, 21, 22, 23, 24	.865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11문항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904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3문항	36, 37, 38	.932
전체	38문항		.854

* 역채점 문항

2차 신뢰도 검증은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단순한 인식을 묻는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항은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적 신뢰도가 .60 이상으로 확인되어 본 설문을 실시하기 위한 설문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설문 문항의 2차 사전 신뢰도 분석 결과 (N=40)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s α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5문항	1, 2, 3, 4, 5	-
전반적인 인식	1문항	6	-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8문항	9, 10, 11*, 12*, 13, 14*, 15*, 16*	.865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8문항	17, 18, 19, 20, 21, 22, 23, 24	.79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11문항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904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3문항	36, 37, 38	.932
전체	36문항		.839

* 역채점 문항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최종 설문지는 독립변수인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 8문항과 인식을 알기 위한 문항 36문항을 포함하여 총 44문항이다, 전체 연구대상인 고교 교사 203명의 설문을 완료한 후 최종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기 위한 문항 중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소외계층의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5문항의 신뢰도는 단순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신뢰도 검증을 생략하였다.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한 문항 중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3문항의 신뢰도는 .803,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5문항의 신뢰도는 .703으로 확인되었다.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8문항은 .76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11문항은 .825,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3문항은 .877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60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문지임을 확인하였다. 각 설문 문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설문 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신뢰도
전반적인 인식	1-5.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5문항	-
	6. 공교육 정상화 기여	1문항	-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9. 계층 간 불평등 해소	3문항	.803
	10. 사교육 비용 경감		
	11. 사교육 유발 및 정보 수집의 격차*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12.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격차*	5문항	.703
	13. 입학사정관의 역량		
	14. 전형의 통일성 및 일관성 결여*		
	15. 평가 방법에 대한 불신*		
	16. 교내 활동 및 학생부 기재사항의 격차*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신뢰도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17.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삭제	8문항	.762
	18.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		
	19. 자율동아리 횟수 제한 및 기재방식 변경		
	20. 소논문(R&E) 미기재		
	21. 학생부 기재분량 축소		
	22. 학생부 작성 관련 교사 연수 강화		
	23.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 의무화		
	24.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 관리 및 보안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25. 자기소개서 문항 개선 및 글자 수 감축	11문항	.825
	26.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 제공		
	27. 자기소개서 허위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28. 교사추천서 폐지		
	29. 대학별 평가 기준 공개		
	30. 전형별 고교 유형 및 지역정보 공시		
	31.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의 도입		
	32.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범제화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33. 공정성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3문항	.877
	34.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실시		
	35. 블라인드 면접 도입		
	36. 전형 명칭 표준화	3문항	.877
	37.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		
	38. 대입 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전체		36문항	.876

* 역채점 문항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분석 방법은 문항별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하였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단순 평균값으로 산출하고,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성 방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보통이다”의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이면 공정성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3점 미만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고등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배경변인(독립 변수)에 따른 분석 요소별 평균 점수의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 변수가 두 집단인 경우는 T검정, 독립 변수가 세 집단인 경우는 F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분석의 틀은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분석의 틀

독립 변수	분석 항목	
1. 성별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2. 근무학교 소재지		-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3. 학교 유형		
4. 교직 경력		
5. 직급	대입제도 개편방안 중	-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6. 고3 담임 경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
7. 담당 학년	제고에 관한 인식	-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
8. 담당 과목		

IV. 연구 결과

1.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각 영역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통계

먼저,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입시전형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정시전형(수능위주)의 평균이 4.12(표준편차=.65)로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생부교과전형(평균=3.63, 표준편차=.84), 논술전형(평균=3.06, 표준편차=.77), 실기전형(평균=2.97, 표준편차=.76), 학생부종합전형(평균=2.91, 표준편차=.92)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인 김평원(2018)의 연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다수인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N=203)

구분		M	SD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	학생부교과전형	3.63	.84
	학생부종합전형	2.91	.92
	정시전형(수능위주)	4.12	.65
	실기전형	2.97	.76
	논술전형	3.06	.77
합계		3.34	.47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실제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의해 공교육이 정상화되었다.’는 문항의 평균은 3.06(표준편차=1.10)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에 학생부종합전형이 기여하고 있으며, 공교육이 더욱 정상화되기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역할이 크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 (N=203)

구분	M	SD
공교육 정상화 기여	3.06	1.10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평균=2.52, 표준편차=1.02), 따라서 사교육 비용의 경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평균=2.31, 표준편차=1.03)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의 역량이나 전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평균=2.98, 표준편차=.90),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2.44, 표준편차=1.00). 특히 지역 및 소속 학교에 따라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불평등(평균=2.06, 표준편차=.99) 및 소속학교 및 담임 교사의 성향에 따라 학생부 기재사항의 불평등 및 격차가 있다는 항목의 평균이 2.04(표준편차=.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인 박찬호·이진희(2018)의 연구 결과에서 학교 간 차이, 교사 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N=203)

구분	M	SD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계층간 불평등 해소	2.52	1.02
	사교육 비용 경감	2.31	1.03
	사교육 유발 및 정보 수집의 격차	2.24	1.01
	소계	2.35	.86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격차	2.06	.99
	입학사정관의 역량	2.98	.90
	전형의 통일성 및 일관성 결여	2.45	.97
	평가방법에 대한 불신	2.44	1.00
	교내 활동 및 학생부 기재사항의 격차	2.04	.88
	소계	2.40	.64
합계	2.38	.65	

나. 집단 간 차이 검증

고등학교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배경변인)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 분산분석은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먼저, 교사의 성별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 남녀 교사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자 교사(평균=2.21, 표준편차=.644)가 남자 교사(평균=2.53, 표준편차=.606)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격차와 전형의 통일성 및 일관성, 그리고 평가 방법, 학생부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두 성별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요소인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성별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성별	N	M	SD	t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기여	남자	120	3.05	1.091	-.142
		여자	83	3.07	1.113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전형의 공정성	남자	120	2.90	.911	-.120
		여자	83	2.92	.927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소외계층 격차해소	남자	120	2.38	.819	.436
		여자	83	2.32	.922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제도적 한계	남자	120	2.53	.606	3.571***
		여자	83	2.21	.644	

*** p<.001

(2)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다음으로, 교사의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의 인식을 알기 위한 하위요인 중에서도 소외계층의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소외계층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남녀 교사 모두 부정적이었으나, 도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평균 2.28점)가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평균 2.7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교사의 근무학교 소재지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입시 준비 과정에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일관적인 응답이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층 간 불평등이 존재하며, 소외 계층의 입시부담 경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근무학교 소재지	N	M	SD	t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도시지역	168	3.06	1.114	.012
	읍면지역	35	3.06	1.027	
제도적 한계	도시지역	168	2.89	.896	-.461
	읍면지역	35	2.97	1.014	
소외계층 격차해소	도시지역	168	2.28	.822	-2.850**
	읍면지역	35	2.72	.955	
공교육 정상화 기여	도시지역	168	2.37	.633	-1.252
	읍면지역	35	2.52	.667	

** p<.01

(3) 학교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유형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율형공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평균=2.24, 표준편차=.448)가 일반계고등학교 중

에서도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사(평균=2.58, 표준편차=.908)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법, 학생부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학교 유형에 관계 없이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요소인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유형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교 유형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학교 유형	N	M	SD	F	Scheffe
공교육 정상화 기여	일반고(국·공립)	32	3.13	1.385	1.020	-
	일반고(사립)	114	2.96	1.113		
	자공고	57	3.21	.861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일반고(국·공립)	32	2.94	1.105	3.015	-
	일반고(사립)	114	2.78	.938		
	자공고	57	3.14	.693		
전형의 공정성	일반고(국·공립)	32	2.54	1.166	2.103	-
	일반고(사립)	114	2.39	.867		
	자공고	57	2.18	.591		
제도적 한계	일반고(국·공립) ¹⁾	32	2.58	.908	3.077*	1>3
	일반고(사립) ²⁾	114	2.42	.620		
	자공고 ³⁾	57	2.24	.448		

* p<.05

(4) 교직경력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교직경력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교직경력	N	M	SD	F	Scheffe
공교육 정상화 기여	5년 이하	40	3.00	.877	.651	-
	6-10년	34	2.88	1.066		
	11-15년	34	3.29	.871		
	16-20년	28	3.11	1.197		
	21년 이상	67	3.04	1.284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5년 이하	40	2.83	.813	2.045	-
	6-10년	34	2.71	.970		
	11-15년	34	2.82	.968		
	16-20년	28	3.32	.723		
	21년 이상	67	2.93	.958		
소외계층 격차해소	5년 이하	40	2.23	.862	1.009	-
	6-10년	34	2.26	.860		
	11-15년	34	2.25	.731		
	16-20년	28	2.40	.693		
	21년 이상	67	2.50	.975		
제도적 한계	5년 이하	40	2.39	.512	1.012	-
	6-10년	34	2.26	.618		
	11-15년	34	2.31	.625		
	16-20년	28	2.54	.637		
	21년 이상	67	2.46	.721		

* p<.05

(5) 직급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직급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보직교사(평균=3.36, 표준편차=1.200)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반교사(평균=2.94, 표준편차=1.032)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도 보직교사(평균=3.29, 표준편차=.811)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반교사(평균=2.75, 표준편차=.912)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소외계층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외계층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는 일반교사(평균=2.23, 표준편차=.805)가 보직교사(평균=2.64, 표준편차=.928)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일반교사(평균=2.30, 표준편차=.602)가 보직교사(평균=2.63, 표준편차=.673)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직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체로 실제 보직교사보다는 일반교사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교과과정과 진학을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교사와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사의 직급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직급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직급	N	M	SD	t
공교육 정상화 기여	보직교사	59	3.36	1.200	2.346*
	일반교사	144	2.94	1.032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보직교사	59	3.29	.811	3.938***
	일반교사	144	2.75	.912	
전형의 공정성	보직교사	59	2.64	.928	3.151**
	일반교사	144	2.23	.805	
제도적 한계	보직교사	59	2.63	.673	3.467**
	일반교사	144	2.30	.602	

* p<.05, ** p<.01, *** p<.001

(6) 고3 담임 지도 경력 유무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지도 경력 유무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지도 경력 유무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고3 담임 지도 경력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고3 담임 지도 경력	N	M	SD	t	
공교육 정상화 기여	있다	124	2.96	1.100	-1.624	
	없다	79	3.22	1.082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있다	124	2.92	.951	.252	
	없다	79	2.89	.862		
전형의 공정성	소외계층 격차해소	있다	124	2.34	.800	-.296
	없다	79	2.38	.954		
제도적 한계	있다	124	2.37	.635	-.862	
	없다	79	2.45	.648		

(7) 담당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주요 담당 학년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담당 학년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담당 학년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197)

구분	담당 학년	N	M	SD	F	Scheffe
공교육 정상화 기여	1학년	67	3.18	.936	1.858	-
	2학년	59	2.83	1.069		
	3학년	71	3.11	1.178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1학년	67	2.84	.771	.215	-
	2학년	59	2.85	1.064		
	3학년	71	2.93	.900		
전형의 공정성	1학년	67	2.29	.811	.743	-
	2학년	59	2.23	.870		
	3학년	71	2.40	.851		
제도적 한계	1학년	67	2.38	.660	1.441	-
	2학년	59	2.26	.594		
	3학년	71	2.45	.617		

(8) 담당 과목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담당 과목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 과목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담당 과목에 따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197)

구분	담당 학년	N	M	SD	F	Scheffe
공교육 정상화 기여	반영교과(문과)	98	3.07	.997	.608	-
	반영교과(이과)	71	2.96	1.152		
	미반영교과	28	3.21	1.134		
현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반영교과(문과)	98	2.99	.867	1.638	-
	반영교과(이과)	71	2.75	.937		
	미반영교과	28	2.79	.957		
소외계층 격차해소	반영교과(문과)	98	2.28	.804	.202	-
	반영교과(이과)	71	2.34	.867		
	미반영교과	28	2.37	.931		
제도적 한계	반영교과(문과)	98	2.32	.609	.635	-
	반영교과(이과)	71	2.41	.638		
	미반영교과	28	2.44	.665		

2.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가. 기술통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인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관하여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조작 및 시험지 유출 등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 관리와 보완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평균 4.20(표준편차=.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고교 학생부 인적사항에서 학부모의 정보를 삭제하고(평균=3.96, 표준편차=.89), 대입에 제공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평균=3.53, 표준편차=1.10) 및 자율동아리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며(평균=3.69, 표준편차=.99), 소논문(R&E)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평균=3.85, 표준편차=.94)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부 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평균=3.87, 표준편차=.87) 학생부 작성 관련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평균=3.72, 표준편차=.92) 학생부의 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평균=3.88, 표준편차=.88) 학생부 기재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관리와 보완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최근 시험지 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입에 제공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을 바탕으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에서 수상경력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에 관한 인식의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에 관한 인식 (N=203)

구분		M	SD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삭제	3.96	.89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	3.53	1.10
	자율동아리 횟수 제한 및 기재방식 변경	3.69	.99
	소논문(R&E) 미기재	3.85	.94
	학생부 기재분량 축소	3.87	.87
	학생부 작성 관련 교사연수 강화	3.72	.92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 의무화	3.88	.88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 관리 및 보안	4.20	.82
	합계	3.84	.57

다음으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평균=4.30, 표준편차=.81),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평균=4.12, 표준편차=.78),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 법제화(평균=4.33, 표준편차=.74) 등 대학의 선발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실제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의 문항 개선 및 글자 수 감축(평균=3.69, 표준편차=.89) 및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 매뉴얼 제공에 대한 필요성(평균=3.73, 표준편차=.93) 또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학연·혈연·지연이 작용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의

법제화와 블라인드 면접 도입, 자기소개서 허위 시 의무적 탈락·입학 취소 등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법제화를 통해 확실한 방지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문항 개선과 작성을 위한 매뉴얼 제공 등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인식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인식 (N=203)

	구분	M	SD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자기소개서 문항 개선 및 글자 수 감축	3.69	.89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 제공	3.73	.93
	자기소개서 허위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4.32	.76
	교사추천서 폐지	3.92	.92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4.30	.81
	전형별 고교 유형 및 지역정보 공시	3.92	.92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의 도입	4.12	.78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4.33	.74
	공정성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3.83	.85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실시	4.03	.76
	블라인드 면접 도입	4.23	.78
	합계	4.04	.50

마지막으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고(평균 =4.06, 표준편차=.85),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의

기능을 강화하며(평균=3.98, 표준편차=.88), 대입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평균=4.03, 표준편차=.83)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 및 소속 학교에 따라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소속학교 및 담임교사의 성향에 따라 학생부 기재사항의 불평등 및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입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대한 인식 (N=203)

구분		M	SD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전형 명칭 표준화	4.06	.85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	3.98	.88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4.03	.83
	합계	4.02	.77

나. 집단 간 차이 검증

고등학교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배경변인)에 따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은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먼저, 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는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식의 차이에서는 요소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성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성별	N	M	SD	t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남자	120	3.80	.551	-.995
	기재 개선	여자	83	3.88	.597	
공정성 제고 방안	선발	남자	120	4.01	.483	-1.059
	투명성	여자	83	4.08	.529	
	대입정보	남자	120	3.98	.767	-.885
	격차 해소	여자	83	4.08	.770	

(2)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다음으로, 교사의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무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는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식의 차이에서는 요소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근무학교 소재지	N	M	SD	t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도시지역	168	3.85	.528	.395
	기재 개선	읍면지역	35	3.79	.746	
공정성 제고 방안	선발	도시지역	168	4.04	.477	.207
	투명성	읍면지역	35	4.02	.620	
	대입정보	도시지역	168	4.06	.721	1.313
	격차해소	읍면지역	35	3.84	.951	

(3) 학교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유형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무하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는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식의 차이에서는 요소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유형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학교 유형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학교 유형	N	M	SD	F	Scheffe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기재 개선	일반고(국·공립)	32	3.76	.78118	.326	-
		일반고(사립)	114	3.85	.518		
		자공고	57	3.86	.538		
공정성 제고 방안	선발 투명성	일반고(국·공립)	32	4.00	.634	.161	-
		일반고(사립)	114	4.06	.451		
		자공고	57	4.03	.527		
	대입정보 격차해소	일반고(국·공립)	32	3.83	.947	1.983	-
		일반고(사립)	114	4.01	.730		
		자공고	57	4.16	.716		

(4) 교직경력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직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는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식의 차이에서는 요소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型的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교직경력	N	M	SD	F	Scheffe
공교육 정상화 기여	5년 이하	40	3.71	.604	.917	-
	6-10년	34	3.90	.595		
	11-15년	34	3.93	.612		
	16-20년	28	3.78	.657		
	21년 이상	67	3.86	.468		
현행 학생부 종합 전型的 공정성	5년 이하	40	3.95	.494	1.735	-
	6-10년	34	4.21	.492		
	11-15년	34	4.10	.521		
	16-20년	28	3.93	.703		
	21년 이상	67	4.03	.380		
소외계층 격차해소	5년 이하	40	3.95	.673	.427	-
	6-10년	34	4.06	.798		
	11-15년	34	4.16	.801		
	16-20년	28	3.95	1.010		
	21년 이상	67	4.011	.682		

(5) 직급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직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는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식의 차이에서는 요소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직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직급	N	M	SD	t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보직교사	59	3.88	.599	.620
	기재 개선	일반교사	144	3.82	.559	
공정성 제고 방안	선발	보직교사	59	4.07	.501	.626
	투명성	일반교사	144	4.03	.504	
	대입정보	보직교사	59	4.06	.820	.464
	격차해소	일반교사	144	4.01	.747	

(6) 고3 담임 지도 경력 유무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최근 5년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지도 경력 유무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입정보 격차해소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정보 격차해소에 대하여 최근 3학년 담임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와 없는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력이 없는 교사(평균=4.16, 표준편차=.689)가 경력이 있는 교사(평균=3.94, 표준편차=.805)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의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대입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점수가 낮은

것을 통해 실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정보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전체적인 인식이 평균 3점보다 높으므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 외 항목인 학생부 기재 개선에 대한 인식과 선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지도 경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고3 담임 지도 경력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203)

구분	고3 담임 지도 경력	N	M	SD	t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기재 개선	있다	124	3.82	.600	-.394
		없다	79	3.86	.522	
공정성 제고 방안	선발 투명성	있다	124	4.01	.536	-1.219
		없다	79	4.09	.444	
	대입정보 격차해소	있다	124	3.94	.805	-1.987*
		없다	79	4.16	.689	

* p<.05

(7) 담당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담당 학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담당 학년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는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식의 차이에서는 요소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 학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담당 학년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197)

구분	담당 학년	N	M	SD	F	Scheffe	
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학생부 기재 개선	1학년	67	3.86	.557	.807	-
		2학년	59	3.75	.576		
		3학년	71	3.85	.586		
	선발 투명성	1학년	67	4.08	.522	.851	-
		2학년	59	4.08	.500		
		3학년	71	3.98	.503		
	대입정보 격차해소	1학년	67	4.05	.770	.767	-
		2학년	59	3.93	.897		
		3학년	71	4.10	.665		

(8) 담당 과목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교사의 담당 과목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입정보 격차해소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정보 격차해소에 대하여 교사의 담당 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평균=4.35, 표준편차=.570)가 반영되는 교과목 중에서도 이과과목을 담당하는 교사(평균=3.86, 표준편차=.974)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대입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점수가 낮은 것은 실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정보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대학과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대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지역의 학생들이나 특성화고교 학생,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입 정보를 제공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항목인 학생부 기재 개선에 대한 인식과 선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 과목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담당 과목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N=197)

구분	담당 과목	N	M	SD	F	Scheffe
학생부 기재 개선	반영교과(문과)	98	3.84	.529	1.721	-
	반영교과(이과)	71	3.74	.632		
	미반영교과	28	3.97	.547		
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반영교과(문과)	98	4.01	.520	2.518	-
	반영교과(이과)	71	4.02	.482		
	미반영교과	28	4.24	.504		
대입정보 격차해소	반영교과(문과) ¹⁾	98	4.07	.622	4.300*	2<3
	반영교과(이과) ²⁾	71	3.86	.974		
	미반영교과 ³⁾	28	4.35	.570		

* p<.05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실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신뢰도 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전형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교사들은 다른 전형들과 비교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김평원(2018)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의해 실제 고교 현장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강기수·박소영(2017)의 연구에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측면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소외계층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영호·김상철(2017)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 심층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전형의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가정환경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이다. 하지만 강기수·박소영(2017), 이기혜·최윤진(2016)의 연구에서 수시모집보다 수능 위주 정시모집이 사교육의 영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활성화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및 소속 학교에 따라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불평등과 소속학교 및 담임교사의 성향에 따라 학생부 기재사항의 불평등 및 격차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인 박찬호·이진희(2018)의 연구 결과에서 학교 간 차이, 교사 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미루어보아 학생부의 효율적인 기재 방법에 대하여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학생부의 객관성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형의 주요 자료인 학생부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며, 교사는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기에 앞서 교사가 먼저 학생을 평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배경변인별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요소에서 직급에 대한 차이, 즉, 교장 및 교감, 부장교사를 포함하는 보직

교사와 일반교사들의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의해 공교육이 정상화되었는지에 대하여 보직교사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반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에서도 보직교사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반교사는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소외계층의 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식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보직교사와 일반교사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보직교사보다 일반교사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평원(2018)의 교사 대상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진학 지도 경력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을 선호하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에 대한 연수가 일반교사보다는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직교사의 진학지도 경력이 대체로 많다는 점 등이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보직교사보다는 일반교사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교과과정과 진학을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교사와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직급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박찬호·이진희(2018)가 언급한 것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은 주요 대입전형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점수 기반의 선발방식을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다양한 활동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학교 교육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직급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연수가 교장, 교감 및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에 한정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교사를 대상으로도 연수를 강화하며, 실제 보직교사보다는 일반교사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교과과정과 진학을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교사와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교사들은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 제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관하여 특히 성적 조작 및 시험지 유출 등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 관리와 보완이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시험지 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철저한 성적 관리와 보완이 공정성 제고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학생부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중 대입에 제공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에서 수상경력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부 기재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학생부 작성 관련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학생

부의 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부 기재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소속학교 및 담임교사의 성향에 따라 학생부 기재사항의 불평등 및 격차가 있다’는 항목을 뒷받침하는 공정성 제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박균열 외(2015)의 학생부 기재방식에 대한 연수 강화와 글자 수 축소, 기재 방법 변경 등 학생부 기재방식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별로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 취소 등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실제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강기수·박소영(2017)과 김평원(2018)이 대학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부 학부모와 사회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평가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측면으로는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 도입 및 회피·제척의 의무화, 입시 부정 및 비리 시 제재와 관련해서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고등교육법의 근거법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교육부,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법제화 등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교 교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누구나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등 정보 습득에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실제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에서 최근 5년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의 경험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대입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을 통해 실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정보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대학과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대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지역의 학생들이나 특성화고교 학생,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입 정보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고교 학생부의 기재방식을 개선하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고교와 대학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신뢰도 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공정성이 낮으므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층 간 불평등이 존재하며, 소외계층의 입시부담 경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형이 추구하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로 인해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지역 및 소속 학교에 따라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소속학교 및 담임 교사의 성향에 따라 학생부 기재사항의 불평등 및 격차가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고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은 전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고교 학생부의 기재 개선과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그리고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방안 모두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세부 방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시된 고등학교 학생부의 기재 방법 개선 방안은 적절하다. 학생부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을 정비하고, 학생부의 기재 격차를 완화하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가정환경

이나 학교환경에 따라 기회가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 특히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의 법제화와 블라인드 면접 도입, 자기소개서 허위 시 의무적 탈락·입학 취소 등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고등교육법의 근거법 규정의 마련을 통해 확실한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시된 대입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적절하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교와 대학의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낮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 혹은 폐지하는 것보다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지속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교 현장과 대학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보다 신뢰롭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보직교사와 일반교사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연수가 교장, 교감 및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에

한정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교사를 대상으로도 연수를 강화하며, 일반교사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기 전인 시점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인 교사들이 부산과 경남지역에만 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고교 교사의 인식 차이만을 분석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의 시점에, 다른 지역을 포함하고,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사회적 인재 선발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변화시키기에 적절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에서의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에서 경쟁 위주의 상대평가 체제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위해 제도는 변화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본연의 교육 목표에 맞춰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기수, 박소영 (2017),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8(3), 49-76
- 강병운 (2001), 대학 입학제도 변화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함의,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창동 (2007),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8, 83-113
- 교육부 (2013),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보도자료
- 김동석 (1998), 새 대학 입학전형제도에 내포된 정책주장의 논리적 분석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김미란, 양성관, 임진택 (2013),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재훈 (2018), 대학입시 학교생활기록부 생성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의식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평원 (2018), 대입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24(3), 105-126
- 남창우, 박서현, 길혜지 (2018) 대학입학전형이 대학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21-47
- 박균열, 엄준용, 주영호 (2015),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관리,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문제연구, 28(1), 81-107

- 박찬호, 이진희 (2018),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 및 공정성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 37(2), 151-193
- 안수진, 안선희 (2015), 2015학년도 대입전형간소화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평가: 학생·학부모·교사의 효과성 인식에 근거한 인과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8(4), 233-269
- 안수진 (2015),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평가 연구: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서현 (2015).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조사. 지방교육경영, 18(2), 1-12.
- 이기혜, 최윤진 (2016) 대학입학전형 선발 결정요인 분석: 가정배경 및 학교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2(1), 135-163
- 이상명 (2017),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7(2)
- 이송희 (2015), 박근혜 정부의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 및 차후 정책방향에 대한 고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태 (2015),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영 (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 교육정치학연구, 25(4), 117-146
- 임충열 (2018),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규 (2011), 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 대학입시의 문제, 사회와 철학, -(21), 107-140

- 조규판, 오성배, 주희진(2012). 효율적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인격교육, □6(2), 101-132.
- 주영호, 김상철 (2017),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 연구, 35(1), 141-168
- 차정민 (2016),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묵 (2016),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562-573
- 한국교육평가학회 (2014), 교육평가 용어사전, 학지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7-2019). 연도별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2019). 연도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보도자료
- 허정은 (2015),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고교 교사 인식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진, 김현철 (2018), 언어네트워크분석 방법으로 분석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의한 학생부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8(9), 707-728

<부록>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연구 설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운영과 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관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설문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문항은 특별하게 정답이 없으며 선생님께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의 효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솔직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항별로 자신의 생각에 가까운 쪽에 **✓**표를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단지 연구를 위해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지도교수 : 부경대학교 교수 원효헌

연구자 :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김 미 진 드림

본 설문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김미진

E-mail : kmj7562@pknu.ac.kr

◆ 아래문항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인해 공교육이 정상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도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인해 계층 간 불평등이 해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인해 사교육 비용이 경감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하며 가정환경에 따라 정보 수집의 불평등 및 격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역 및 소속 학교에 따라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의 불평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별 자체기준으로 인해 전형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 방법이 투명하지 않아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소속학교 및 담임교사의 성향에 따른 교내 활동 및 학생부 기재사항의 불평등 및 격차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 개편 방안 관련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중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관하여 선생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	---

◆ 아래문항은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의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학생부 인적사항에서 학부모의 정보 삭제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안): 학기 당 1개 이내(총 6개)	①	②	③	④	⑤
19. 자율동아리를 학년 당 1개에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한글 30자 이내로 기재	①	②	③	④	⑤
20. 소논문(R&E) 미기재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생부 내 기재분량 축소(교사의 기재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창체 특기사항 및 행특 종합의견 4000자 ⇒ 2,200자로 축소	①	②	③	④	⑤
22. 학생부 작성 관련 교사연수 강화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 등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 의무화를 통해 허위·부당·부실 기재를 예방하는 것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 관리 및 보안(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아래문항은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자기소개서 문항 개선 및 글자 수 감축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학생의 개별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질문 방식 개선, 4개 문항 5,000자 ⇒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①	②	③	④	⑤
26.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 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7. 자기소개서의 대필·허위 작성한 자를 0점 처리하던 것을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하는 것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정원 미달 시에는 합격 가능하던 것을 개선함	①	②	③	④	⑤
28. 교사추천서 폐지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9.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0.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1.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2.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수험생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제도	①	②	③	④	⑤
33.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4. 학생부 기반의 확인 면접 실시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5. 블라인드 면접 도입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 미제공	①	②	③	④	⑤

◆ 아래문항은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것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예시: ○○○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①	②	③	④	⑤
37.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기능 강화*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대학별 평가기준 등에 대한 학생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38.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는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대입 상담교사단 운영,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 개최 등	①	②	③	④	⑤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나 문제점 등 평소 생각했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설문 응답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